

# 금융자산 10억이상 32만명...원천은 사업소득·부동산

[한국부자]

코스피 지수 급락으로 부자수 증가율 최근 5년 중 최저

부자 45% 서울 거주...2017년 14만9천명서 지난해 4500명 증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우리나라 부자는 약 32만명,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20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피(KOSPI) 지수가 급락하면서 부자수 증가율(4.4%)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금융자산은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감소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발표한 '2019 한국부자(富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는 3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7년 증가율인 14.4%보다 크게 둔화된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2016년 말 2026에서 2017년 말 2467로 급상승

(21.8%)하면서 주식가치 상승에 따라 부자수가 급증했다가 2018년 말 코스피 지수가 2041로 17.3% 떨어지면서 부자수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0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줄었다. 이 역시 코스피 지수 하락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부자의 45.0%인 14만5400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경기(7만명), 부산(2만4000명), 대구(1만5000명), 인천(1만명) 순

이었다.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에 17.3%,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지방에 13.2%의 부자가 살고 있다.

서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서울 전체 부자의 46.6%가 살고 있다. 그외 강북지역에 33.7%,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강남지역에 19.7%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역시 서울이다. 서울의 부자는 2017년 14만9000명에서 지난해 14만5400명으로 4500명이 증가했

다. 경기 부자는 4100명, 인천 부자는 1100명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 외 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로 600명이 늘었고,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울산, 부산에서 각각 500명, 300명, 200명 증가했다.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3.7%와 금융자산 39.9%, 기타 자산 6.4%로 구성됐다. 국내 일 반 가구의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6.6%와 금융자산 18.9%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자의 자산 중 전년대비 가장 큰 비중 차이를 보이는 자산은 현금과 수시입출금, MMF/MMT의 '유동성금융자산' (4.3%포인트), '발행/상가' (1.3%포인트), '거주 주택' (0.6%포인트)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경제 불안과 부동산 규제 확대 등에 따라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이 현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은 사업소득(47.0%)으로, 2순위인 부동산 투자(2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부

를 형성한 원천에서 사업소득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2014년에 비해 '사업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5%포인트나 증가했다.

다만 이는 수도권(52.0%)과 기

타지역(32.0%)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KB금융 관계자는 "사람과 사업기회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IT나 스타트업 등 각종 사업 운영을 통해 부가 축적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총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이 '부동산투자'와 '상속/증여'를 자산형성의 원천으로 꼽았지만,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자산형성의 원천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KB금융그룹은 올해로 9년째 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투자행태 파악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뉴스1

## 액티브 시니어 50·60대 맞춤 '우체국라이프+' 카드 출시

우정사업본부, 은퇴 후 소비·여가 맞춤형 상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 본부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50·60대 '액티브 시니어'의 맞춤형 상품 '우체국 라이프 플러

스(+)'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를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체국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국내의 겸용으로 발급돼 해외 사용도 가능하다. 동물병

원·스포츠시설·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최대 10%, 우체국은 최대 5%, 해외 결제는 최대 1%를 사용 금액에 따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우체국라이프플러스 신용카드 는 보안카드(OTP) 생성기가 포함된 일체형으로 출시된다. 우체국·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SSM)·소셜커머스·학원·병원·주유·커피·베이커리·영화관 등 결제 시 최대 5%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연다. 체크카드 신규 가입 후 일정금액 이상 이용한 고객 3220명을 추첨해 국민관광상품권·신세계상품권·편의점쿠폰·인천공항 라운지 식사권을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건강, 여가,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시니어 고객에게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체국은 맞춤형 혜택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휘발유 한 달 만에 45원 올랐다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9.9원 상승한 리터(ℓ)당 1539.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값은 리터당 1494.0원이었던 8월 마지막 주와 비교해 4주 동안 45원 올랐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인터넷·앱으로 가능해진다

무주택자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자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기금대출 서비스 '기금e드든'을 오는 30일 인터넷, 다음달 14일 모바일을 통

해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기금e드든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새로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소득요건과 함께 자산요건을 추가 심사한다.

뉴스1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